

♡1 본능을 억제시키고 발달한 문명

문명은 “인간을 자연에서 보호해 주고 인간의 상호 관계를 조정해 주는 두 가지 목적에 이바지하는 규제와 성취의 총량을 가리킨다”고 지그문트 프로이트(1856~1939)는 설명한다.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면서 문명이 발전한 것이다. 인류 조상들에게 세상은 불확실한 공포로 가득한 곳이었다. 삶의 고통과 관계의 상처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든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었다. 그것이 문명발달의 힘이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생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다. 인생은 너무 많은 고통과 실망과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 준다. 인생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 그런 수단으로는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고통을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편향, 둘째는 고통을 줄여주는 대리 만족, 셋째는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마취제다. 이런 고통 완화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문명과 함께 종교도 발전한다. 그런데 종교는 “우리의 원망과 정확히 일치한다”. 선조들은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나머지 유아기 때 무력감을 그대로 반영해서 ‘신’을 아버지처럼 만들어놓았다. 마피아에겐 ‘대부’가, 북한엔 ‘아버지 수령’이! 우린 강한 아버지를 갈망한다.

그리하여 신의 섭리의 자애로운 지배는 삶의 위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 주고, 도덕적인 세계 질서 확립은 인류 문명 속에서는 대체로 실현되지 않은 정의의 요구를 확실하게 실현시켜 준다. 이승에서의 생존이 내세에서 연장된다는 개념은 이 원망 실현이 일어날 공간적 시간적 체제를 제공해 준다.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수께끼—예를 들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육체와 정신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이 체제의 기본적인 전제에 따라 전개된다. 유아기의 아버지 콤플렉스에서 생겨나는 갈등이 마음에서 제거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형태로 해결된다면, 개인의 마음은 커다란 위안을 얻을 것이다.

종교들을 지금 보면 좀 황당하긴 하다. “비참하게 짓밟힌 무지한 우리 조상들이 우주의 난해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 성공했다면, 그것은 훨씬 놀랄 만한 일일 것이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지구엔 괴물들이 산다고 믿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종교가 우주의 진실일 리가 없다. 그러나 종교는 인간 개개인을 집단에 복종시키면서 희생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어느 사회든 종교가 융성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 문명은 본능 억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는 문명을 통해 보호를 받지만 본능은 억제된다. 자유를 포기하고 안전을 선택한 것이다.

♡2 억압하고 승화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성욕

문명에서 본능을 억압한 인간은 즐기치게 발동하는 성욕을 문명 활동으로 돌리게 된다. “인간의 성 본능은 그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고, 이처럼 대상이 바뀌어도 그 강도는 사실상 거의 줄어들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강력한 성욕을 변환시켜서 우린 여러 활동에 몰입한다. 이를 ‘승화’라고 부르는데, 안타깝게도 무한하게 승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승화를 통해, 즉 성 본능의 에너지를 성적 대상에서 좀 더 고상한 문화적 대상으로 돌림으로서 성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그 소수마저도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열적이고 원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성 본능을 다스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 소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신경증에 걸리거나 이런저런 해를 입는다. 경험으로 보건대,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는 체질적으로 금욕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

최소한의 성만족이 일어나지 않은 채 성욕을 모조리 승화시킬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성적 만족은 대부분의 유기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개인마다 만족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성만족도 없는 사람은 기능 장애가 생기고 엄청난 불쾌감과 좌절감으로 삶이 황폐해지며, 성욕을 짓누르는 데 힘쓰느라 무기력해진다. “그들은 성 본능을 억제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써버린 탓에 문화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내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외적으로는 무기력해져 있다.”

인간은 성욕 때문에 자위를 많이 하게 되는데, 프로이트는 자위를 탐닉하게 되는 걸 걱정한다. “자위 행위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온 힘을 쏟는 대신 손쉽게 이루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 속 인간과 성관계 맺기보다 상상 속에서 환상의 인물과 자위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현실 속 성관계가 어려워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문명 아래서는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위를 할수록 죄책감은 심해진다.

적절하고 원만하게 성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인간은 신경증을 앓게 된다. “신경증 증세는 본질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성적 원망의 대리 만족이다.” 신경증은 성 본능이 충족이 되지 않아 뒤틀린 형태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면서 성에 대한 무의식의 죄책감을 신경증으로 징별하는 것이라고 프로이트는 주장한다. “우리는 정신 신경증의 경우에도 성생활을 저해하고 성행동을 억압하거나 그 목적을 왜곡하는 모든 요소를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 위선자를 만드는 문명

사람들은 겉으로 성 도덕을 따르는 척 하지만 “금지된 본능은 적당한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터져 나와 만족을 얻으려 한다.” 문명이 교육시킨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실제 내 모습 사이엔 커다란 간극이 생겨난다. 따라서 “온갖 억제와 제한을 받고 있는 자아가 주기적으로 금지령을 어기는 것은 정한 이치다.” 우리가 틈만 나면 축제를 벌이면서 여러 가지를 즐기거나 금요일 밤에 방탕하게 노는 이유다. 우린 말과 행동이 다르다. 남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은 무척이나 괴리가 있다. ‘자아 이상’과 ‘실제의 자아’는 판판이다. 이러한 분열을 내 안의 초자아는 알고 있다. 타인을 향한 공격 본능은 문명을 거치면서 방향을 자기 안으로 돌린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형태로 자신을 다그치고 닦달한다.

자아는 원래 외부의 다른 개체에게 그 공격성을 발산하여 본능을 충족시키고 싶었겠지만, 이제 거꾸로 공격 대상이 된 셈이다. 우리는 엄격한 초자아와 그 지배를 받는 자아 사이의 긴장을 죄책감이라고 부른다. 죄책감은 자기 징벌의 욕구로 나타난다. 따라서 문명은 개인의 공격성을 약화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는 한편, 마치 정복한 도시에 점령군을 주둔시키듯 개인의 내부에 공격성을 감시하는 주둔군을 뒹뚱으로써 개인의 위험한 공격 욕구를 통제한다.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문화적 위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은 사실 진지하게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프로이트는 얘기한다. “현대 문명은 그런 위선 위에 세워져 있”고, “진정한 문명인보다는 문화적 위선자가 훨씬 많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한다면 “현대 문명은 광범위한 변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망가지는 결혼생활

성 억압은 본능에 손상을 끼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여성들은 이런 사정을 알아차리고, 구혼자들 중에서 이미 다른 여자에게 남성다움을 입증한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한다.” 결혼생활을 잘 하려고 완전한 금욕을 하거나 자위를 하면서 견뎌는데 오히려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성 억압으로 남자들이 성 기능에 문제를 겪는다면 여자들은 불감증에 시달리고 수동적인 태도로 남편에게 실망을 안긴다. “결혼이 미혼 시절의 금욕 생활을 보상해”주는커녕 금욕은 결혼생활에 커다란 장애가 되기 일쑤다.

자위 행위나 도착적 성행위에 탐닉한 결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리비도를 만족시키는 상황과 조건에 익숙해져 버린 남자들은 부부 생활에서 충분한 성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비슷한 수단의 도움으로 처녀성을 지킬 수 있었던 여성들도 결혼한 뒤 정상적인 성교에는 불감증을 보인다. 양쪽이 다 사랑하는 능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다른 결혼보다 훨씬 빠르게 해체 과정을 밟는다.

성의 자유는 삶의 독립과 연결되어 있다.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고는 성 생활을 주도하지 못한다. “그녀는 정신적 감정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성욕을 억제한 권위있는 부모와 결부되어 있고, 육체적 행동에서는 불감증을 보인다.” ‘순결’은 불행한 앞날을 예고한다. “일찍이 부모의 가르침에 고분고분 순종했던 대가로 그녀는 성적인 욕구 불만이나 불륜이나 신경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성관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부부가 드물다. 그 결과 남편들은 외도를 하고 여자들은 종교생활에 빠지거나 자식교육에 집착하곤 한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은 정신적 환멸과 육체적 불만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남편과 아내는 환상이 깨진 것 때문에 더욱 불행해진 것을 빼고는 결혼 전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들은 또 다시 성 본능을 억제하고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불굴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남편이 좀 더 원숙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이 일에 성공하는지는 구태여 물어볼 필요도 없다. 아무리 엄격한 성적 규범도 어느 정도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침묵의 가면을 쓰고 마지못해 허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내 임상 경험으로 보건대, 남자들은 자신에게 허용된 만큼의 성적 자유를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것 같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이중적> 성도덕이야말로, 사회 자체가 수행하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5 성 본능을 더 억압당한 여자들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성에 대해 엄청난 호기심과 욕망을 갖고 있지만 대개는 억압당하면서 감춰지곤 한다. 이것이 여성의 지성과 삶의 태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프로이트는 진단한

다. “사랑의 대상을 얻기 위해 정력적으로 돌진하는 사람은 삶의 다른 목표도 것처럼 정력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성 본능에 두려움을 느끼고 관심을 억압하려고 하는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며 방관자의 자세를 보인다.

여성은 성문제에 커다란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이 문제에 지적인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그런 호기심은 여성답지 못할뿐더러 음탕한 기질의 징후라는 비난을 듣고 겁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여성은 <모든> 형태의 사고에 겁을 먹고 뒷걸음치며, 여성에게 지식은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 사고 금지는 불가피한 연상작용을 통해, 또는 자동적으로 성적인 영역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다.

남자들처럼 성에 관심을 적극 보이지도 못하고 남편과도 원만한 성생활을 못한 채 혼외정사에 나서지도 못하는 여성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여성은 자신의 소망과 의무감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신경증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질병만큼 안전하게 그녀의 정절을 지켜 주는 것은 없다.” 신경증을 앓으면서 남자와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신경증세는 더 악화된다. 프로이트는 “결혼 생활에서 생겨난 신경병은 불륜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좀 더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여성일수록, 그리고 문명의 요구에 좀 더 엄격하게 따르는 여성일수록 이런 해결책을 택하기를 두려워한다.”

♡6 문명 안에서의 억압받는 사람들

“모든 문명은 강제와 본능 억제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강제가 없을 때 문명이 이뤄질지 확실치 않다면서 프로이트는 인간 안의 공격 본능을 우려한다. 그래서 강제와 억압을 인정하면서 “대중에 대한 소수의 지배”도 옹호한다. “대중은 게으르고 우둔”한 데다 본능을 자제하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소수는 지도자가 되어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본능 자제의 희생을 감수하고 생산 활동을 수행하도록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문명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은 어느 정도 자신의 만족을 제한한다. “따라서 문명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정의다.” 평등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저항이 일어나고 문명은 무너진다. 그렇지만 부조리한 사회라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을 경멸할 수 있는 원리는 그들이 자기 문화권 안에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주인에게 적의를 품으면서도, 주인을 자신의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억압당한 계층에게 돌아가는 몫은 터무니없이 일쑤이므로 억압당한 계층들의 불만을 방치하는 문명이라면 반란이 일어나 무너져도 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한다.

문명은 억압당한 계층의 노동을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그 문명이 소유하고 있는 부에서 그 계층이 차지하는 몫은 너무나 적다. 상황이 이렇다면, 억압당한 자들이 문명에 대해 강한 적의를 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억압당한 자들이 문화적 금지를 내면화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금지를 부정하고, 문명 자체를 파괴하는 데 열중하며, 문명의 토대인 각종 전제들을 제거하는 데 몰두할 수도 있다. 이런 계층이 문명에 때해 품고 있는 적의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들보다 혜택받은 계층의 잠재적 적의는 간과되어 왔다. 그렇게 많은 구성원들의 불만을 방치함으로써 그들을 반란으로 몰아넣는 문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존속할 가능성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다.